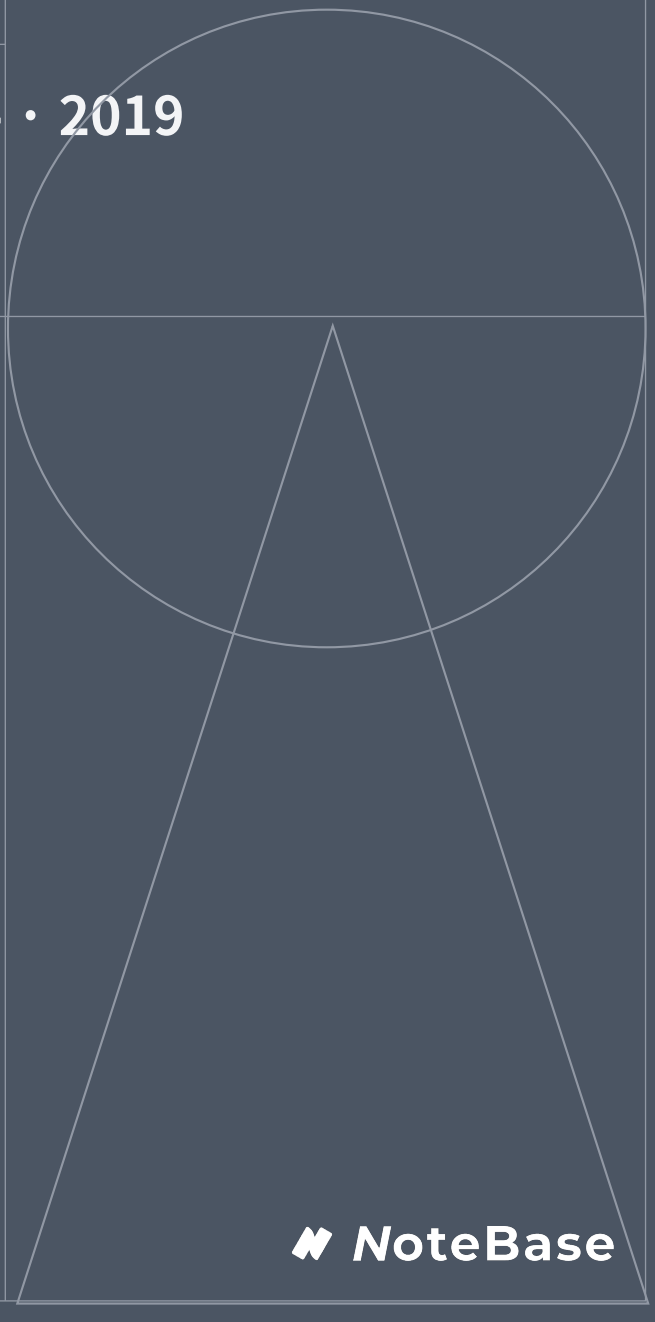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19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19

문 101.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간 및 동작 연구

② 기능적 직장제도

③ 집단중심의 보상

④ 과업에 적합한 종업원 선발과 훈련 강조

⑤ 고임금 저노무비 지향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대표하는 제도와 보상 원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표준 과업을 정하고, 과업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훈련하며,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관리 방식이다.
테일러의 대표 키워드는 시간 및 동작 연구, 기능적 직장제도, 차별적 성과급제, 과학적 선발과 훈련, 고임금·저노무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간 및 동작 연구는 작업 동작과 소요 시간을 분석하여 표준 작업방법과 표준시간을 설정하려는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 수단이다.
② O — 기능적 직장제도는 한 명의 직장이 모든 지도를 맡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기능별 직장이 각자의 분야에서 작업자를 지휘하도록 한 제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집단중심의 보상'이다. 테일러는 집단 중심 보상보다 개별 근로자의 과업 달성 성과에 연계한 차별적 성과급제를 강조하였다.
④ O — 과업에 적합한 종업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의 주요 원리이다.
⑤ O — 고임금·저노무비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제품 단위당 노무비는 낮추려는 과학적 관리법의 지향점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의 '집단중심'은 협동을 중시한다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테일러의 임금 자극은 표준 과업을 달성한 개인의 성과와 보상을 연결한다. 집단 중심 보상은 과학적 관리법의 대표 원리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일러가 나오면 작업의 과학적 분석, 표준 과업, 기능별 감독, 과업에 맞는 선발·훈련, 개인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집단 중심 보상이나 인간관계 중심 설명은 테일러의 핵심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테일러 = 시간·동작 연구 + 기능적 직장제도 + 개인별 차별적 성과급 + 고임금·저노무비이다.

NoteBase

문 102.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하위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② 최상위 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③ 욕구계층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④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성장욕구에 속한다.

⑤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각 욕구의 순서와 결핍욕구·성장욕구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 →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설명한다.
생리적 욕구부터 존경 욕구까지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욕구이고, 최상위의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성장욕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생존에 필요한 음식, 수면 등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가 최하위 단계이다.
② O —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자아실현 욕구가 5단계 중 최상위이다.
③ O — 고전적인 욕구단계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설명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성장욕구'라고 한 것이다. 이는 존경 욕구로서 결핍욕구에 속하며, 성장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⑤ O — 기본적인 단계 모형에서는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다음 상위 욕구가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의 '인정과 존경'이라는 표현을 개인의 발전과 비슷한 말로 보아 성장욕구로 오인하게 하는 함정이다. 인정과 존경은 4단계 존경 욕구이고, 성장욕구는 5단계 자아실현 욕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리·안전·사회·존경·자아실현의 순서를 확인한 뒤, 앞의 네 단계는 결핍욕구이고 자아실현만 성장욕구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생리-안전-사회-존경은 결핍, 자아실현은 성장이다.

NoteBase

문 103.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 관점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③ 사회적 책임 관점

④ 학습과 성장 관점

⑤ 재무 관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기본 관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전략을 재무 관점뿐 아니라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체계이다.
네 관점의 흐름은 학습과 성장 역량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결과 고객가치가 높아져 최종적으로 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고객 관점은 고객 만족도, 고객 유지율, 시장점유율 등 고객에게 제공한 가치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BSC의 기본 관점이다.

② O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고객과 주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는 BSC의 기본 관점이다.

③ X
사회적 책임 관점은 고전적 BSC의 네 가지 기본 관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책임 관점'이며, 올바른 네 관점은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④ O
학습과 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역량, 정보시스템, 조직문화 등 장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평가하는 BSC의 기본 관점이다.

⑤ O
재무 관점은 수익성, 매출 성장, 투자수익률 등 전략 실행의 최종적인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BSC의 기본 관점이다.

오답 포인트

'균형'이라는 말 때문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이 묻는 고전적 BSC의 기본 분류에는 사회적 책임 관점이 없고,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만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SC 관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네 가지 밖의 명칭은 기본 관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SC의 네 관점은 '재무·고객·내부·학습'이다.

NoteBase

문 104. 강화계획 (schedules of reinforcement)에서 불규칙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 후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기법은?

① 고정간격법
② 변동간격법
③ 고정비율법
④ 변동비율법
⑤ 연속강화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강화 제공 기준이 시간 간격인지 행동 횟수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고정적인지 불규칙한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간격법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강화하고, 비율법은 바람직한 행동이 몇 번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고정은 기준이 일정하다는 뜻이고, 변동은 기준이 불규칙하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규칙한 횟수의 행동 후 강화하는 방식은 변동비율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고정간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난 뒤 나타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한다. 틀린 표현은 '고정간격법'이며, 불규칙한 행동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변동비율법'이 맞다.
② X — 변동간격법은 불규칙한 시간 간격이 지난 뒤 나타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한다. 틀린 표현은 '변동간격법'이며, 불규칙한 행동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변동비율법'이 맞다.
③ X — 고정비율법은 일정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난 뒤 강화한다. 틀린 표현은 '고정비율법'이며, 행동 횟수가 불규칙할 때는 '변동비율법'이 맞다.
④ O — 변동비율법은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난 뒤 강화하므로 지문의 조건과 일치한다.
⑤ X — 연속강화법은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강화한다. 틀린 표현은 '연속강화법'이며, 불규칙한 횟수의 행동 후 강화하는 방식은 '변동비율법'이다.

오답 포인트

'불규칙한'만 보고 변동간격법을 고르기 쉽다. 지문의 '횟수'는 비율을 뜻하므로 '불규칙한 횟수'는 변동과 비율을 결합한 변동비율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간'이면 간격, '행동 횟수'이면 비율로 구분한다. 그다음 기준이 일정하면 고정, 불규칙하면 변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간은 간격, 횟수는 비율이며, 불규칙한 횟수는 변동비율이다.

NoteBase

문 105.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 조직구성원들이 개인적 불공정성을 시정(是正)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투입의 변경
② 산출의 변경
③ 투입과 산출의 인지적 왜곡
④ 장(場) 이탈
⑤ 준거인물 유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서 지각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물의 비율과 비교하고, 두 비율이 다르다고 지각하면 불공정성의 긴장을 줄이려 한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시정 방법에는 투입 변경, 산출 변경, 자신이나 타인의 투입·산출에 대한 인지적 왜곡,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 장 이탈, 준거인물 변경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투입의 변경은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노력, 시간, 업무량 등 투입을 늘리거나 줄여 투입·산출 비율을 조정한다.
② O — 산출의 변경은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방법이다. 임금 인상이나 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등 자신이 얻는 산출을 바꾸려 한다.
③ O — 투입과 산출의 인지적 왜곡은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방법이다. 실제 조건을 바꾸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의 투입·산출을 다르게 해석하여 지각된 불공정성을 줄인다.
④ O — 장 이탈은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방법이다. 결근, 전직, 퇴사 등 비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 긴장을 줄인다.
⑤ X — 준거인물을 그대로 유지하면 비교에서 생긴 불공정성도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시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준거인물 유지'이며, 올바르게는 '준거인물 변경'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공정성이론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준거인물 유지'도 관련 반응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불공정성을 줄이는 반응은 비교 대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준거인물로 바꾸는 것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행동이 투입·산출의 비율이나 그에 대한 지각, 비교 대상, 비교 상황 가운데 하나를 실제로 바꾸는지 확인한다. 아무 요소도 바꾸지 않는 '준거인물 유지'는 시정 행동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불공정성 시정은 투입·산출·지각·상대방·장·준거를 바꾸는 것이며, 준거는 유지가 아니라 변경이다.

NoteBase

문 106. 직무급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임금이 결정된다.

②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유리하다.

③ 인건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⑤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적용이 용이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직무급의 임금 결정 기준과 장점·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무급은 사람의 연령·근속·보유능력이 아니라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로 산정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무와 임금의 대응 관계가 명확하여 동일가치의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하지만, 직무분석·직무평가와 임금체계 설계가 필요하므로 시행 절차가 복잡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직무급은 직무평가로 산정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개별 직무의 임금을 결정한다.
② O — 연공이 아니라 직무의 가치와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보상하므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③ O — 직무가치에 맞추어 임금을 배분하므로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O —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적용이 용이하다'이다. 실제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무별 임금액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행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이 쉽지 않다.

오답 포인트

직무급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을 시행도 간단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임금 기준은 직무가치로 명확하지만, 그 가치를 정하기 위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무가치·동일노동 동일임금·합리적 인건비 관리'는 직무급의 특징으로 판단하고, '간단한 도입·쉬운 적용'은 직무평가 절차의 복잡성과 충돌하는 표현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직무급은 직무가치에 따른 합리적 임금이지만, 직무평가가 필요하여 도입은 복잡하다.

NoteBase

문 107.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종별 노동조합은 동종 근로자 집단으로 조직되어 단결이 강화되고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이 용이하다.

② 일반노동조합은 숙련근로자들의 최저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초기에 발달한 형태이다.

③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동일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④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종을 초월한 거대한 조직으로서 정책활동 등에 의해 압력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⑤ 연합체 조직은 각 지역이나 기업 또는 직종별 단위조합이 단체의 자격으로 지역적 내지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직종별·일반·기업별·산업별 노동조합과 연합체 조직으로 구분하고, 각 형태의 조직 기준과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종별 노동조합: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숙련을 가진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넘어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이해관계가 동질적이어서 단결과 임금·근로조건 교섭에 유리하다.
일반노동조합: 직종이나 산업을 가리지 않고 주로 미숙련 근로자를 폭넓게 조직하여 최저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동조합이다.
기업별 노동조합: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 동일 산업의 근로자들을 기업과 직종의 구별 없이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연합체 조직: 여러 단위노동조합이 단체 자격으로 가입하여 지역 또는 전국 수준의 상급조직을 이루는 형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직종별 노동조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조직하므로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비교적 동질적이다. 이에 따라 단결력이 강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쉽다.
② X. 틀린 표현은 '숙련근로자들'과 '초기에 발달한 형태'이다. 일반노동조합은 직종과 산업을 초월하여 주로 미숙련 근로자를 폭넓게 조직하고 최저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형태이다. 숙련근로자를 중심으로 초기에 발달한 형태는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③ O.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동일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기업 내부의 근로조건과 경영상 사정을 공유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적용하기가 비교적 쉽다.
④ O.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산업 안에서 기업과 직종의 경계를 넘어 근로자를 조직한다. 조직 규모가 크고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에 관여할 수 있어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⑤ O. 연합체 조직은 지역별·기업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 자격으로 상급조직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그 상급조직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 범위로 구성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일반노동조합의 목표인 '최저생활조건 확보'를 맞게 제시한 뒤, 조직 대상과 발달 시기를 직종별 노동조합의 특징으로 바꾸어 놓았다. '숙련근로자·초기 발달'은 직종별 노동조합, '미숙련근로자·직종과 산업을 초월한 폭넓은 조직'은 일반노동조합에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의 공통 기반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직종·숙련이면 직종별, 같은 기업이면 기업별, 같은 산업에서 기업·직종을 초월하면 산업별, 직종·산업 자체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조직하면 일반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들이 단체로 가입하면 연합체 조직이다.

암기 포인트

직종별은 숙련과 직종, 일반은 미숙련의 폭넓은 결집, 기업별은 같은 회사, 산업별은 같은 산업, 연합체는 단위조합의 결합이다.

NoteBase

문 108. 상사 A에 대한 나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태도의 구성요소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나의 상사 A는 권위적이다.
ㄴ. 나는 상사 A가 권위적이어서 좋아하지 않는다.
ㄷ. 나는 권위적인 상사 A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① ㄱ. 감정적 요소 ㄴ. 인지적 요소 ㄷ. 행동적 요소
② ㄱ. 감정적 요소 ㄴ. 행동적 요소 ㄷ. 인지적 요소
③ ㄱ. 인지적 요소 ㄴ. 행동적 요소 ㄷ. 감정적 요소
④ ㄱ. 인지적 요소 ㄴ. 감정적 요소 ㄷ. 행동적 요소
⑤ ㄱ. 행동적 요소 ㄴ. 감정적 요소 ㄷ. 인지적 요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태도의 세 구성요소인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진술의 핵심 표현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지적 요소: 대상에 관하여 가지는 믿음·생각·판단이다. 키워드는 '~라고 생각한다'이다.
감정적 요소: 대상에 대한 호감·비호감 등의 느낌이나 정서이다. 키워드는 '좋아한다·싫어한다'이다.
행동적 요소: 대상에 대하여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나 행동 경향이다. 키워드는 '~하겠다'이다.
따라서 ㄱ의 '권위적이다'는 판단, ㄴ의 '좋아하지 않는다'는 감정, ㄷ의 '따르지 않겠다'는 행동의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감정적 요소, ㄴ을 인지적 요소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은 인지적 요소, ㄴ은 감정적 요소, ㄷ은 행동적 요소이다.
② X — ㄱ을 감정적 요소, ㄴ을 행동적 요소, ㄷ을 인지적 요소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은 인지적 요소, ㄴ은 감정적 요소, ㄷ은 행동적 요소이다.
③ X — ㄴ을 행동적 요소, ㄷ을 감정적 요소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은 인지적 요소, ㄴ은 감정적 요소, ㄷ은 행동적 요소이다.
④ O — '권위적이다'는 상사에 대한 판단이므로 인지적 요소, '좋아하지 않는다'는 비호감이므로 감정적 요소, '따르지 않겠다'는 행동의도이므로 행동적 요소이다.
⑤ X — ㄱ을 행동적 요소, ㄷ을 인지적 요소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은 인지적 요소, ㄴ은 감정적 요소, ㄷ은 행동적 요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에는 '권위적이어서'라는 판단의 근거가 함께 나오지만, 진술의 결론인 '좋아하지 않는다'가 감정을 나타낸다. 또한 ㄷ은 실제 행동의 완료가 아니라 '따르지 않겠다'는 행동의도이지만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진술의 결론을 기준으로 믿음·판단이면 인지적 요소, 호감·비호감이면 감정적 요소, 행동 또는 행동의도이면 행동적 요소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생각은 인지, 느낌은 감정, 하려는 것은 행동이다.

NoteBase

문 109.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의 권력원천 분류에 따라 개인적 원천의 권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적 권력
ㄴ. 준거적 권력
ㄷ. 전문적 권력
ㄹ. 합법적 권력
ㅁ. 보상적 권력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ㄴ,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을 개인적 원천과 직위적·조직적 원천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개인적 원천의 권력은 개인이 지닌 전문성과 매력·동일시에서 나온다.
준거적 권력: 상대가 그 사람을 닮거나 동일시하고 싶어 하는 매력과 존경에서 생긴다.
전문적 권력: 상대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생긴다.
직위적·조직적 원천의 권력은 조직이 부여한 지위와 통제 수단에서 나온다. 합법적 권력은 공식 직위, 보상적 권력은 보상 제공 능력, 강제적 권력은 처벌 능력에 근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강제적 권력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위적·조직적 권력이므로 개인적 원천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ㄴ의 준거적 권력과 ㄷ의 전문적 권력이 개인적 원천에 해당한다.

② O
ㄴ의 준거적 권력은 존경과 동일시에서, ㄷ의 전문적 권력은 지식과 능력에서 나오므로 둘 다 개인적 원천의 권력이다.

③ X
ㄹ의 합법적 권력은 공식 직위에 따라 명령할 정당한 권한에서 나오므로 개인적 원천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ㄷ의 전문적 권력과 ㄴ의 준거적 권력이 개인적 원천에 해당한다.

④ X
ㄹ의 합법적 권력과 ㅁ의 보상적 권력은 각각 공식 직위와 보상 통제 능력에 근거하므로 모두 직위적·조직적 원천이다. 올바르게는 ㄴ의 준거적 권력과 ㄷ의 전문적 권력이 개인적 원천에 해당한다.

⑤ X
ㄱ의 강제적 권력과 ㅁ의 보상적 권력은 처벌과 보상이라는 조직적 통제 수단에서 나오므로 개인적 원천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과 ㅁ을 제외한 ㄴ의 준거적 권력과 ㄷ의 전문적 권력만 개인적 원천에 해당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권력이 한 개인을 통해 행사된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권력을 개인적 원천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개인적 원천은 개인 자체의 전문성·매력에 근거하는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만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권력의 근거가 개인의 지식·능력이나 존경·동일시이면 개인적 원천으로, 공식 직위나 보상·처벌 통제권이면 직위적·조직적 원천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적 권력은 준거·전문, 직위적 권력은 합법·보상·강제이다.

NoteBase

문 110. 모집 방법 중 사내공모제(job posting system)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의 상위직급 승진 기회가 제한된다.

② 외부 인력의 영입이 차단되어 조직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③ 지원자의 소속부서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④ 특정부서의 선발 시 연고주의를 고집할 경우 조직 내 파벌이 조성될 수 있다.

⑤ 선발과정에서 여러번 탈락되었을 때 지원자의 심리적 위축감이 고조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내공모제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승진·경력개발 기회와 내부모집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내공모제는 조직 내부의 공석과 자격 요건을 종업원에게 공개하고, 희망자가 스스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부모집 제도이다. 종업원에게 직무이동과 승진의 기회를 넓혀 동기를 높일 수 있지만, 외부 인재 유입 제한, 현 소속부서 상사와의 갈등, 파벌 형성, 반복 탈락에 따른 좌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상위직급 승진 기회가 제한된다'이다. 사내공모제는 조직 내부의 공석에 종업원이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므로 상위직급으로 이동하거나 승진할 기회를 확대한다.

② O
내부 인력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면 외부 인재와 새로운 관점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어 조직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③ O
다른 부서의 공석에 지원하는 행위가 현 부서를 떠나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면 지원자와 현 소속부서 상사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④ O
특정부서가 직무 적합성보다 학연·지연 등 연고를 중시하여 선발하면 연고별 집단이 형성되어 조직 내 파벌로 이어질 수 있다.

⑤ O
사내공모에 여러 번 지원하고도 계속 탈락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조직 내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심리적 위축감이 커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사내공모제가 내부모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의 기회를 좁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제한되는 것은 외부 인력의 유입 가능성이고, 내부 종업원의 직무이동·승진 기회는 오히려 확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내공모제의 효과를 '내부 종업원에게 미치는 효과'와 '외부 인재 유입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판단한다. 내부 종업원에게는 지원·승진·경력개발 기회를 넓히지만, 조직에는 외부 인재 유입 감소와 내부 갈등·탈락 좌절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내공모제는 내부 기회는 확대하고 외부 유입은 제한한다.

NoteBase

문 111. 인사고과의 오류 중 피고과자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은?

① 상동적 오류(stereotyping errors)
②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s)
③ 대비오류(contrast errors)
④ 근접오류(proximity errors)
⑤ 후광효과(halo effect)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피고과자 개인의 실제 특성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동적 오류는 성별·연령·출신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해 가진 일반화된 인상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평가 오류이다.
논리적 오류는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보이는 평가 요소들을 실제보다 비슷하게 평가하는 오류이다.
대비오류는 피고과자의 성과를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평가자 자신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오류이다.
근접오류는 평가표에서 가까이 배치된 평가 요소들에 비슷한 점수를 주는 오류이다.
후광효과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에 대한 인상이 다른 평가 요소의 판단까지 지배하는 오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상동적 오류는 피고과자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인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논리적 오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서로 관련되어 보이는 여러 평가 요소를 비슷하게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 오류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대비오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피고과자를 다른 사람이나 평가자 자신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비오류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근접오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평가표에서 서로 가까이 놓인 평가 요소들에 유사한 점수를 주는 것이 근접오류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집단에 대한 평가를 후광효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에 대한 인상이 다른 평가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후광효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동적 오류와 후광효과는 모두 구체적인 평가 근거 대신 인상에 끌린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①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⑤는 '한 개인의 두드러진 특성에서 생긴 인상의 확산'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 근거가 집단이면 상동적 오류, 한 가지 개인 특성이 전체 평가로 번지면 후광효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이면 대비오류, 평가 요소 사이의 연관성 추정이면 논리적 오류, 평가표상 위치가 가까우면 근접오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의 틀은 상동, 한 특성의 빛은 후광, 사람 간 비교는 대비, 항목의 연관 추정은 논리, 항목의 이웃 효과는 근접이다.

NoteBase

문 112. 집단의사결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③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수용도와 응집력이 높아진다.

④ 서로의 의견에 비판없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⑤ 차선책을 채택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집단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고, 집단이라고 해서 항상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아님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단의사결정은 여러 구성원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공동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다양한 정보의 활용, 참여 과정에서의 학습, 결정에 대한 높은 수용도와 집단 응집력이다.
단점은 동조 압력과 집단사고, 책임 분산, 의사결정 지연, 타협으로 인한 차선책 선택 가능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여러 구성원이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므로 개인의사결정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O — 구성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정보와 판단 근거를 공유하므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학습하는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O — 구성원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합의를 형성하면 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높아지고 집단의 결속과 응집력도 강화될 수 있다.
④ O — 집단에서는 응집력이나 동조 압력이 지나치게 강할 때 다른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다수 의견에 동의하는 집단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차선책을 채택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실제로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타협이나 동조 압력 때문에 최적안이 아닌 차선책을 채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집단이 개인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한다는 장점만 보고 집단의 결정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⑤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절대적 표현과 달리, 집단은 타협과 동조로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의 다양성·학습·수용도는 집단의사결정의 장점으로, 동조·집단사고·책임 분산·시간 지연·타협적 차선책은 단점으로 분류한다. '항상', '반드시', '발생하지 않는다'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예외 가능성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은 정보와 수용도는 높이지만, 동조와 타협 때문에 최적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13.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을 효율화 시키는 등 주로 원가절감에 관심을 갖는 마케팅 개념은?

① 판매 개념
② 생산 개념
③ 관계마케팅 개념
④ 통합마케팅 개념
⑤ 내부마케팅 개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산성 향상, 유통 효율화, 원가절감을 중시하는 마케팅 관리 철학이 생산 개념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산 개념: 소비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고 보며, 생산 효율과 광범위한 유통을 통해 원가와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판매 개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구매하지 않는다고 보고 적극적인 판매와 촉진을 중시한다.
관계마케팅: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장기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통합마케팅: 여러 마케팅 활동과 접점을 서로 조정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내부마케팅: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보고 교육·동기부여하여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판매 개념'은 적극적인 판매와 촉진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관점이다. 생산성과 유통 효율을 높여 원가를 낮추는 관점은 '생산 개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생산 개념'은 생산성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이용 가능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둔다.
③ X — '관계마케팅 개념'은 고객과 장기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유지하는 관점이다.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은 '생산 개념'이다.
④ X — '통합마케팅 개념'은 제품·가격·유통·촉진 등 마케팅 활동을 조정하여 일관된 고객가치를 전달하는 관점이다.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유통 효율을 중시하는 표현은 '생산 개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내부마케팅 개념'은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보고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관점이다.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은 '생산 개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항에 '유통'이 제시되어 통합마케팅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유통 효율화·원가절감'이 함께 제시되면 핵심은 마케팅 활동의 조정이 아니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는 생산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 효율·대량생산·유통 확대·낮은 원가가 핵심이면 생산 개념, 판매 압력·촉진이면 판매 개념, 장기적 고객관계이면 관계마케팅, 활동 간 조정과 일관성이면 통합마케팅, 종업원 교육·동기부여이면 내부마케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 개념은 '많이, 널리, 싸게'이다.

NoteBase

문 114.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관리 기법은?

① 전환적 마케팅(conversional marketing)
② 동시화 마케팅(synchro marketing)
③ 자극적 마케팅(stimulative marketing)
④ 개발적 마케팅(developmental marketing)
⑤ 디마케팅(demarketing)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수요 상태별 마케팅관리 기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과잉수요 상태에서는 수요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디마케팅을 사용한다.

핵심 개념

전환적 마케팅: 부정적 수요를 긍정적 수요로 전환하는 기법이다. / 키워드: 부정적 수요
동시화 마케팅: 계절·시간대 등에 따라 불규칙한 수요의 시기를 조절하여 공급과 맞추는 기법이다. / 키워드: 불규칙 수요
자극적 마케팅: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관심과 수요를 일으키는 기법이다. / 키워드: 무수요
개발적 마케팅: 잠재수요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제 수요로 전환하는 기법이다. / 키워드: 잠재수요
디마케팅: 공급능력을 넘는 과잉수요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기법이다. / 키워드: 초과수요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환적 마케팅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연결한 점이 틀리다. 전환적 마케팅은 소비자가 제품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부정적 수요를 긍정적 수요로 바꾸는 기법이다.

② X
동시화 마케팅을 초과수요 감소 기법으로 본 점이 틀리다. 동시화 마케팅은 시기별로 들쭉날쭉한 불규칙 수요의 시간적 분포를 조절하여 공급과 일치시키는 기법이다.

③ X
자극적 마케팅을 초과수요 감소 기법으로 본 점이 틀리다. 자극적 마케팅은 소비자의 관심이 없어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무수요 상태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기법이다.

④ X
개발적 마케팅을 초과수요 감소 기법으로 본 점이 틀리다. 개발적 마케팅은 충족되지 않은 잠재수요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제 수요로 전환하는 기법이다.

⑤ O
디마케팅은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과잉수요 상태에서 가격 조정, 판촉 축소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줄이는 기법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수요를 조절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동시화 마케팅과 디마케팅을 혼동하기 쉽다. 동시화 마케팅은 수요의 시기를 고르게 맞추는 것이고, 디마케팅은 수요의 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제시한 수요 상태를 먼저 찾는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수요 감소가 필요하면 디마케팅, 수요 시점이 불규칙하면 동시화 마케팅, 수요가 없으면 자극적 마케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초과수요는 디마케팅으로 낮추고, 불규칙 수요는 동시화 마케팅으로 맞춘다.

NoteBase

문 115.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중 소유권의 정도와 통제력이 강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계약형 VMS
② 기업형 VMS
③ 관리형 VMS
④ 협력형 VMS
⑤ 혼합형 VM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MS)의 유형을 소유권에 의한 통합, 계약에 의한 조정, 영향력에 의한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업형 VMS는 한 기업이 생산과 유통의 여러 단계를 소유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 VMS는 소유권이 독립된 구성원들이 계약으로 결합하는 방식이고, 관리형 VMS는 규모나 영향력이 큰 구성원이 소유권이나 계약 없이 다른 구성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에 따른 통제는 기업형, 계약에 따른 통제는 계약형, 힘과 영향력에 따른 통제는 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계약형 VMS는 독립된 생산·유통 구성원들이 계약으로 협력하므로 소유권 통합의 정도가 가장 강한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유권과 통제력이 강한 유형을 계약형 VMS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계약에 의한 조정이 강한 유형이다.
② O — 기업형 VMS는 한 기업이 생산과 유통의 연속된 단계를 소유하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력이 가장 강하다.
③ X — 관리형 VMS는 지배적 구성원의 규모와 영향력으로 유통 경로를 조정하며, 소유권 통합에 의해 통제하는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유권과 통제력이 강한 유형을 관리형 VMS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영향력에 의한 조정이 강한 유형이다.
④ X — 협력형 VMS는 VMS의 표준적인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협력형 VMS라는 분류이며, 올바른 기본 분류는 기업형·계약형·관리형 VMS이다.
⑤ X — 혼합형 VMS는 VMS의 표준적인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혼합형 VMS라는 분류이며, 올바른 기본 분류는 기업형·계약형·관리형 VMS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계약형도 계약을 통해 구성원을 강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소유권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문제의 표현인 '소유권의 정도'에 주목하지 않으면 계약형과 기업형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제의 근거를 확인한다. 동일 기업의 소유이면 기업형, 독립 기업 간 계약이면 계약형, 지배적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면 관리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업형은 소유, 계약형은 계약, 관리형은 영향력이다.

NoteBase

문 116. 소비자 심리에 근거한 가격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속가격(captive pricing)
② 단수가격(odd pricing)
③ 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④ 긍지가격(prestige pricing)
⑤ 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의 가격 인식과 판단을 이용하는 심리적 가격결정 방법과 제품 간 연계에 따른 가격결정 방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심리적 가격결정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주는 심리적 인상이나 판단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속가격은 주제품과 그 사용에 필요한 종속제품의 가격을 연계하여 정하는 제품믹스 가격결정 방법이다.
단수가격·준거가격·긍지가격·관습가격은 각각 끝자리 효과, 비교 기준, 고가격의 품질 신호, 익숙한 가격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종속가격(captive pricing)은 소비자 심리에 근거한 가격결정이 아니다. 주제품은 비교적 낮게, 그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종속제품은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정하는 제품믹스 가격전략이다. 틀린 표현인 '소비자 심리에 근거한 가격결정'은 '주제품과 종속제품의 관계를 이용한 제품믹스 가격결정'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단수가격(odd pricing)은 10,000원 대신 9,900원처럼 끝자리를 단수로 제시하여 실제 차이보다 싸게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가격결정이다.
③ O — 준거가격(reference pricing)은 소비자가 현재 가격을 과거 가격, 경쟁제품 가격, 표시된 정상가격 등 비교 기준과 대조하여 평가하는 심리를 이용한다.
④ O — 긍지가격(prestige pricing)은 높은 가격을 높은 품질·명성·지위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다.
⑤ O — 관습가격(customary pricing)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가격 수준을 소비자가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심리를 고려하여 가격을 정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종속'이라는 말이 특정 소비자 집단의 심리를 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주제품에 사용이 종속되는 보완제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종속가격은 심리가 아니라 제품 간 사용 관계가 분류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의 끝자리, 비교 기준, 고가격의 상징성, 익숙한 가격처럼 소비자의 지각과 판단이 핵심이면 심리적 가격결정이다. 주제품과 소모품·부속품의 결합 관계가 핵심이면 종속가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수·준거·긍지·관습은 소비자 심리, 종속가격은 주제품과 종속제품의 결합이다.

NoteBase

문 117. (주)한국의 유동자산은 1,200,000원이고,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와 150%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은?

① 300,000원
② 600,000원
③ 900,000원
④ 1,800,000원
⑤ 2,400,0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동비율로 유동부채를 구한 뒤 당좌비율로 당좌자산을 구하고,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차감하여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유동자산(CA): 1,200,000원
유동비율(CR): 200%
당좌비율(QR): 150%
구해야 할 값: 재고자산(I)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분모는 모두 유동부채(CL)이다.

사용할 공식

$CR = \frac{CA}{CL} \times 100$
$QR = \frac{QA}{CL} \times 100$
$I = CA - QA$
여기서 QA는 당좌자산이다. 두 비율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유동부채를 먼저 구하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차례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유동부채를 구한다.
CL=1,200,0002.00=600,000원
2. 당좌자산을 구한다.
QA=600,000×1.50=900,000원
3. 재고자산을 구한다.
I=1,200,000-900,000=300,000원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재고자산은 30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 600,000원은 유동비율로 구한 유동부채이다. 재고자산은 3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900,000원은 당좌비율로 구한 당좌자산이다. 재고자산은 3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1,800,000원은 유동자산보다도 크므로 재고자산이 될 수 없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뺀 3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2,400,000원은 유동자산에 유동비율 200%를 곱한 값으로, 비율의 분모인 유동부채를 구하는 계산과 반대이다. 재고자산은 3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600,000원은 유동부채이고 900,000원은 당좌자산이다. 이 두 중간값을 재고자산으로 착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차감해야 한다. 또한 200%와 150%는 각각 2.00과 1.50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동비율로 공통 분모인 유동부채를 먼저 구하고, 당좌비율로 당좌자산을 구한 다음,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동부채 → 당좌자산 → 재고자산의 순서이며, 재고자산은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118. 투자안의 경제성분석방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수기간법
ㄴ. 수익성지수법
ㄷ. 회계적이익률법
ㄹ. 순현재가치법
ㅁ. 내부수익률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현금흐름의 할인 여부, 즉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한다는 뜻이다.
수익성지수법: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와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순현재가치법: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이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일반적인 회수기간법은 회수 전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고, 회계적이익률법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회계이익을 이용하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인 회수기간법은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으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ㄱ을 포함하고 ㄹ과 ㅁ을 빠뜨린 조합이 잘못되었으며, 올바른 조합은 ㄴ, ㄹ, ㅁ이다.
② X — ㄱ인 회수기간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ㄴ과 ㅁ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 ㅁ이다.
③ X — ㄷ인 회계적이익률법은 회계이익을 기초로 하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ㄹ과 ㅁ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 ㅁ이다.
④ O — ㄴ 수익성지수법, ㄹ 순현재가치법, ㅁ 내부수익률법은 모두 할인된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을 사용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⑤ X — ㄷ인 회계적이익률법을 포함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ㄴ 수익성지수법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 ㅁ이다.

오답 포인트

회수기간법도 현금흐름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가치를 반영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수기간법은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또한 회계적이익률법의 '이익률'은 할인율이 아니라 회계이익을 투자액과 비교한 비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법의 명칭보다 계산 과정에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할인율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익성지수법·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일반적인 회수기간법·회계적이익률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시간가치 반영은 수익성지수·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 즉 '수·순·내'이다.

NoteBase

문 119. (주)한국의 자기자본 시장가치와 타인자본 시장가치는 각각 5억원이다. 자기자본 비용은 16%이고, 세전타인자본비용은 12%이다. 법인세율이 50%일 때 (주)한국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① 6%

② 8%

③ 11%

④ 13%

⑤ 1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각 자본의 시장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자기자본 시장가치 5억원, 타인자본 시장가치 5억원, 자기자본비용 16%, 세전타인자본비용 12%, 법인세율 50%이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시장가치가 같으므로 각 가중치는 0.5이다.
주의할 조건: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반영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세후 기준으로 바꾼다.

사용할 공식

$WACC = \frac{E}{D+E}R_E + \frac{D}{D+E}R_D(1-T)$
여기서 E는 자기자본 시장가치, D는 타인자본 시장가치, R_E는 자기자본비용, R_D는 세전타인자본비용, T는 법인세율이다.
기업 전체의 자본조달비용을 구하므로 각 자본비용에 시장가치 비중을 곱하고, 타인자본에는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다.

계산 과정

1.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12\% \times (1 - 0.5) = 6\%$이다.
2.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가중치는 각각 $5/(5 + 5) = 0.5$이다.
3. 따라서 $WACC = 0.5 \times 16\% + 0.5 \times 6\% = 8\% + 3\% = 11\%$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6%는 세후 타인자본비용일 뿐 전체 자본의 가중평균비용이 아니다. 올바른 WACC는 11%이다.
② X — 8%는 자기자본비용 16%에 자기자본 가중치 0.5만 곱한 값으로, 타인자본의 기여분 3%가 빠졌다. 올바른 WACC는 11%이다.
③ O — 자기자본의 기여분 8%와 세후 타인자본의 기여분 3%를 합하면 WACC는 11%이다.
④ X — 13%는 시장가치 가중치와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공식대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WACC는 11%이다.
⑤ X — 15%는 세후 타인자본비용 6%와 동일한 자본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WACC는 11%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세전타인자본비용 12%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세후 타인자본비용 6%를 WACC 자체로 착각하는 것이다. 타인자본비용에는 먼저 $(1 - T)$를 곱한 뒤, 다시 타인자본의 시장가치 비중을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시장가치 비중을 구하고, 타인자본비용을 $R_D(1 - T)$로 세후 조정한 다음 두 자본비용의 가중값을 합한다.

암기 포인트

WACC는 '시장가치 가중평균'이며, 타인자본비용만 세후 기준인 $R_D(1 - T)$를 사용한다.

NoteBase

문 120. (주)한국의 A부품에 대한 연간수요는 4,000개이며, A부품 구입가격은 단위당 8,000원이다. 1회당 주문비용은 4,000원이고,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구입가격의 10%일 때 A부품의 경제적 주문량(EOQ)은?

① 100개
② 200개
③ 300개
④ 400개
⑤ 600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간 수요량, 1회 주문비용,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을 경제적 주문량(EOQ) 공식에 대입해 총재고비용이 최소가 되는 주문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연간 수요량 $D = 4{,}000$개, 1회 주문비용 $S = 4{,}000$원, 단위당 구입가격은 8,000원이다.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구입가격의 10%이므로 $H = 8{,}000 \times 0.10 = 8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경제적 주문량 Q^*이다.

사용할 공식

$Q^* = \sqrt{\frac{2DS}{H}}$
경제적 주문량은 연간 주문비용과 연간 재고유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Q^* = \sqrt{\frac{2 \times 4{,}000 \times 4{,}000}{800}} = \sqrt{40{,}000} = 200$
따라서 경제적 주문량은 200개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0개는 계산 결과인 200개와 다르다. 틀린 표현 '100개'는 '200개'로 고쳐야 한다.
② O — EOQ 공식으로 계산한 경제적 주문량이 정확히 200개이다.
③ X — 300개는 계산 결과인 200개보다 크다. 틀린 표현 '300개'는 '200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 400개는 계산 결과인 200개의 두 배이다. 틀린 표현 '400개'는 '200개'로 고쳐야 한다.
⑤ X — 600개는 계산 결과인 200개의 세 배이다. 틀린 표현 '600개'는 '200개'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제의 10%를 주문비용에 적용하거나 0.1 자체를 재고유지비용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 10%는 단위당 구입가격 8,000원에 적용하므로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8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구입가격과 재고유지비율로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 H를 구한 뒤, D, S, H를 EOQ 공식에 대입하고 제곱근까지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EOQ는 '2×연간수요량×1회 주문비용 ÷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의 제곱근이다.

NoteBase

문 121. 수요예측기법 중 인과형 예측기법(causal forecasting methods)에 해당하는 것은?

① 델파이법
② 패널동의법
③ 회귀분석법
④ 판매원 의견종합법
⑤ 자료유추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요예측기법을 인과형 예측기법과 정성적 예측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과형 예측기법은 수요와 가격·소득·광고비 등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를 모형화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회귀분석법과 계량경제모형이 있다.
정성적 예측기법은 충분한 과거 자료가 없거나 수치 모형을 만들기 어려울 때 전문가·판매원 등의 판단이나 유사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델파이법, 패널동의법, 판매원 의견종합법, 자료유추법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에게 익명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인과형 예측기법'이 아니라 '정성적 예측기법'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패널동의법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된 예측치를 도출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인과형 예측기법'이 아니라 '정성적 예측기법'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회귀분석법은 수요를 종속변수로 두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 관계를 추정하므로 인과형 예측기법에 해당한다.
④ X —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고객과 시장에 가까운 판매원들이 제시한 판매예측을 모아 전체 수요를 예측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인과형 예측기법'이 아니라 '정성적 예측기법'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자료유추법은 기존의 유사한 제품이나 상황의 수요 패턴을 새로운 대상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인과형 예측기법'이 아니라 '정성적 예측기법'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기법이 과거 또는 시장 정보를 활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③은 변수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반면, ①·②·④·⑤는 사람의 판단이나 유사 사례에 의존한다는 차이가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와 영향요인의 관계를 식이나 통계모형으로 추정하면 인과형이고, 전문가·판매원 의견이나 유사 사례로 판단하면 정성적 기법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인과형은 원인변수와 수요의 관계를 추정하며, 대표 기법은 회귀분석법이다.

NoteBase

문 122.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가상각비

② 광고비

③ 매출원가

④ 자기주식처분이익

⑤ 유형자산처분이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수익·비용과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자본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반면 자기주식의 처분은 기업과 소유주 사이의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인식하는 비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② O — 광고비는 제품이나 기업을 알리기 위해 발생한 판매 관련 비용이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③ O —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다.
④ X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보는 부분이 틀렸다. 자기주식 처분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처분대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⑤ O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의 처분대가가 장부금액을 초과할 때 인식하는 이익이므로 당기손익에 포함되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오답 포인트

④와 ⑤는 모두 명칭에 '처분이익'이 들어가지만 회계처리가 다르다. 자기주식 처분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고, 유형자산 처분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이므로 전자만 당기손익에서 제외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거래가 영업·자산처분 등 기업의 성과를 만드는 거래인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인지 구분한다.
수익·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자기주식 거래에서 생긴 차액은 자본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손익, 자기주식 처분 차액은 자본이다.

NoteBase

문 123. (주)한국(결산일: 12월 31일)은 2017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0원에 취득하고, 잔존가치 200,00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19년 초 이 기계장치를 1,300,000원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의 기계장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① 처분이익 20,000원

② 처분손실 20,000원

③ 처분이익 100,000원

④ 처분손실 100,000원

⑤ 처분손실 300,0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여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구한 뒤, 처분가액과 비교해 처분손익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2,000,000원
잔존가치: 200,000원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보유기간: 2017년 초부터 2019년 초 처분까지 2년
처분가액: 1,300,000원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이다.
처분 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처분 시 장부금액이다.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처분이익, 작으면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200,000}{5}=360,000$원이 된다.
2. 2017년과 2018년의 2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00\times2=720,000$원이다.
3. 2019년 초 처분 시 장부금액은 $2,000,000-720,000=1,280,000$원이다.
4. 처분손익은 $1,300,000-1,280,000=20,000$원이므로 처분이익 20,000원이 발생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처분가액 1,300,000원이 장부금액 1,280,000원보다 20,000원 크므로 처분이익 20,000원이 발생한다.
② X — '처분손실 20,000원'은 손익의 방향을 반대로 판단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처분이익 20,000원'이다.
③ X — '처분이익 100,000원'은 처분 시 장부금액을 잘못 계산한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처분이익 20,000원'이다.
④ X — '처분손실 100,000원'은 처분손익의 금액과 방향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처분이익 20,000원'이다.
⑤ X — '처분손실 300,000원'은 취득원가나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금액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처분이익 2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잔존가치는 처분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값이다. 또한 2019년 초에 처분했으므로 감가상각기간은 2017년과 2018년의 2년이며,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는 점에서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액법 처분손익 문제는 연간 감가상각비 계산,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처분 시 장부금액 계산, 처분가액과 장부금액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다'이고,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처분 시 장부금액을 뺀다'이다.

NoteBase

문 124.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① 미교부주식배당금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미처분이익잉여금

⑤ 주식발행초과금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본 항목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으로, 대표 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자본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등에 바로 분류하기 어려워 자본에서 가감하는 항목이며, 미교부주식배당금 등이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것이며, 실제로는 자본조정 항목이다.
② X — 법정적립금은 법률에 따라 이익에서 적립한 금액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의 적립금에 해당한다.
③ X —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이익에서 자율적으로 적립한 금액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의 적립금에 해당한다.
④ X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직 배당이나 적립 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누적 이익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⑤ O —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으로,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자본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세부 분류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①은 명칭에 '주식'이 들어가지만 주식발행초과금과 달리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이고, ②~④는 이익의 유보·처분과 관련된 이익잉여금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식의 발행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금액이면 자본잉여금, 영업으로 벌어 유보한 이익이면 이익잉여금, 자본에서 가감하여 조정하는 항목이면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 법정·임의·미처분은 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이다.

NoteBase

문 125.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담아 10~15 cm의 근거리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기술은?

① 블루투스(Bluetooth)
②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③ NFC(Near Field Communication)
④ IoT(Internet of Things)
⑤ 텔레매틱스(Telematic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스마트폰 결제에 쓰이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NFC를 다른 정보통신 개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FC는 약 10~15 cm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접촉식 무선통신기술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결제 단말기와 교환하는 모바일 결제가 대표적인 활용 사례이다.
블루투스는 주변 기기 간 무선 연결, GPS는 위치 확인, IoT는 사물의 인터넷 연결, 텔레매틱스는 통신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원격 정보 서비스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블루투스는 이어폰·키보드 등 주변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틀린 표현은 결제용 10~15 cm 근거리 통신기술로 본 부분이며, 올바른 개념은 NFC이다.
② X — GPS는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틀린 표현은 금융정보를 단말기와 교환하는 결제 기술로 본 부분이며, 올바른 개념은 NFC이다.
③ O —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약 10~15 cm의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하므로 스마트폰의 비접촉 결제에 활용된다.
④ X — IoT는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교환하고 제어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틀린 표현은 IoT 자체를 짧은 거리의 결제 통신 규격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른 개념은 NFC이다.
⑤ X — 텔레매틱스는 통신과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차량 등에 위치·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스마트폰 근거리 결제 기술로 본 부분이며, 올바른 개념은 NFC이다.

오답 포인트

블루투스도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통신하므로 ①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결정적 표현은 금융정보를 이용한 결제와 10~15 cm라는 매우 짧은 통신 거리이며, 이는 NFC의 대표적 특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접촉 결제·교통카드·태그와 수 cm 수준의 통신 거리가 함께 제시되면 NFC로 판단한다. 주변 기기 연결은 블루투스, 위치 확인은 GPS, 사물의 인터넷 연결은 IoT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NFC는 가까이 대는 결제, 블루투스는 주변 기기 연결, GPS는 위치 확인이다.

NoteBase